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6>

성문·연각 불보살 세계를 알 수 없다

입법계품의 첫머리 부분에는 특별히 주목되는 내용이 있다. 세존께서 사자빈신삼매에 들어서 나타나 보인 여래의 신통력·출중한 모습·묘한 행·정당한 세계와 여러 가지로 부사의한 보살의 경계를 서다립에 있던 모든 성문들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이다. 그 성문들 가운데에는 사리불·대목건련·마하가섭·수보리·아나율·가전연·부루나와 같은 여러 훌륭한 성문들이었다. 그들조차도 마치 귀머거리와 장님 같아서 여래와 보살들의 여러 가지 훌륭한 신통변화에 대해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선군이 같지 않고, 부처님을 뵈울 수 있는 재한 선근을 익히지 않았으며, 부처님들의 공덕과 갖가지 신통과 변화를 본래 청정하지 않은 때문이다. 또한 생사에 해매면서도 보리심을 내지 않고, 다른 이를 보리심에 머물게 하지도 못했으며, 중생들을 거두어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살의 바라밀을 권해서 닦게 하지 못한 때문이다. 그리고 본래부터 온갖 지혜를 내는 선근을 닦지 않고,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는 신통과 지혜를 얻지 못했으며, 모든 보살의 큰 서원을 내지 않은 때문 등이다.

입법계품에서는 이러한 것은 모두 두루 널리 자비를 행하여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보현보살의 지혜로운 안목의 경계이기

佛 사자빈신삼매 경계 성문은 보지 못해

‘대승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길’ 설해

때문에 모든 성문과 연각들의 경계가 아니라 하고 있는 것이다. 큰 성문 제자라 할 지라도 그들은 성문의 가르침을 익히하여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났으므로 성문의 도를 성취하고 성문의 행을 만족하고 성문의 과보에만 머무르려 한다. 그리고 유위법이나 무위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혜를 얻어서, 언제나 진실한 경계에 고요히 머무르며, 중생을 크게 가엾이 여김이 없이 중생을 버리고 자기의 입에만 머무른다. 또한

지혜는 원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닦아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처님과 보살들의 부사의하고 자재한 신통변화를 볼 수 없었다고 하고 있다. 입법계품에서 이처럼 대성문들조차도 불보살의 경계를 볼 수 없다고 되풀이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성문과 연각의 소승불교를 비판하고 대승불교를 선양하려는 입장이 분명하다. 여기에는 소승의 입장이 무량한 지혜를 구하거나 닦음이 없이 단지 유무(有無)에 관한 지혜를 터득, 청정하고 고요한 경계를 즐기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없이 이기주의로 살아가려는 것임이 반하여, 대승의 입장은 그것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전혀 새로운 차원의 불교라는 것을 강조하는 면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입장 때문에 화엄경의 교설을 ‘특별히 초월적인 입승을 설하는 가르침[一乘別教]’이라고 하는 칭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보살만을 위한 독선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다. 그렇지만 입법계품이 부처님의 철저한 자비정신이나 무위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혜를 얻기 때문에 결코 성문과 연각의 입장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기만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문수보살이 보살들과 함께 남쪽으로 길을 떠나려 할 때 사리불 등 육천 명의 비구들이 그와 함께 가기를 원하자 그들에게 설하는 가르침에 잘 나타나 있다. 육천 명의 비구는 사리불이 문수보살의 무량한 공덕을 찬탄하는 것을 듣고 대승의 가르침에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을 구하게 된다. 문수보살은 그들에게 ‘선남자 선여인이 열 가지의 대승으로 나아가는 법을 성취하면 성문과 연각의 지위에 떨어지지 않고, 여래의 거문에 태어나며, 모든 보살의 소원을 갖추며, 모든 여래의 공덕을 배우며, 모든 보살의 행을 무욕하며, 여래의 힘을 얻어 여러 마귀의 경계와 외도를 굴복시키며, 모든 번뇌를 떨치고,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서 여래의 자리에 가까워진다’고 설하고 있다.

그러자 이것을 들은 비구들이 ‘결집없는 눈으로 부처의 경계를 봄’이라는 삼매를 얻고, 큰 지혜를 얻으며, 보살의 마음에 확고하게 머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은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권하여 보현행(普賢行)에 머무르게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소승의 성문불교를 새로운 대승불교로 포섭하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전통불교의 성문 연각의 길이 대승 보살의 길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입법계품은 결코 단순히 이승(二乘)을 부정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소승의 입장을 비판 부정하고, 대승이야말로 진정한 불교라는 것을 천명하면서도, 그 대승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길이라는 것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강결전 교수의 불교와 의학 <6>

임신 중 태교 중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불교의 삼합(三合)의 원리와 12 연기의 법칙에 의하여 임신 중 태아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측정할 결과, 아기의 이완 정도 및 아기의 응시력 등이 베이비플러스 프로그램으로 태교하여 태교(胎教)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태교를 하면 태아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다음 내용은 외국의 초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해 임신 기간 중 태교를 실시한 기간은 합하여 15주였다. 출생 6개월 후 아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측정할 결과, 아기의 이완 정도 및 아기의 응시력 등이 베이비플러스 프로그램으로 태교한 그룹에서 눈에 띄게 좋았다. 그 후 7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을 관찰한 결과, 처음으로 말하기, 처음으로 걷기, 처음으로 소리에 반응하기 등이 베이비플러스 프로그램으로 태교한 그룹에서 더 빨랐으며, 7세 때 초등학교 학업 성취도 베이비플러스 프로그램으로 태교한 그룹에서 더욱 좋았다고 한다.

스페인의 바렌치아 대학 심리학과에서 행한 연구에 의하면, 임신부 101명을 대상으로 임신 28주부터 허리에 녹음세트를 차고 가벼운 바이올린 음악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복잡한 음악을 듣게 했다. 하루 90분을 테이프를 듣게 하고 이때 산모로 하여금 태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 무의식적인 태아와의 대화를 하도록

베네첼라의 심리학자 만리코 여사가 행한 태교의 결과에 의하면, 만리코 여사는 680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교를 실시한 연구군과 태교를 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누어 생후 6년까지

태교한 신생아 지각, 언어 등 향상

생후 6년 관찰 IQ높고 정서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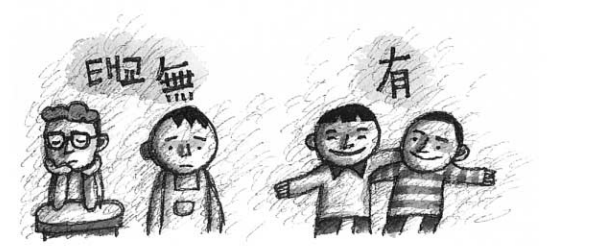
하였다. 출생 후 6개월에 신생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측정할 결과, 태교를 한 그룹의 아기는 태교를 하지 않은 그룹의 아기에 비하여 운동 능력, 지각 능력, 언어 발달 및 인지 능력 등이 유익하게 향상되었다고 한다.

추적하면서 관찰하였다. 태교는 임신 기간 중 주당 2시간씩 모두 13주 동안 태아와 같이 노래 부르고, 이야기하고, 음악을 들려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출생 직후, 1달 후, 18개월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그리고 6년 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기를 측정하였는데 태교를 받은 그룹의 아기는 청력, 시력, 언어 능력, 운동 능력, 기억력 등이 태교를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지능지수(IQ)는 대조군의 어린아보다 태교를 받은 그룹의 아기가 14점이 더 높았다. 또한 정서적으로도 온순하고, 잘 웃고, 활동적·공정적이며, 협동적이었다.

러시아 모스크바 소아 재활의학 센터의 라자레프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7년에 걸친 태교에 관한 연구를 했다. 태교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첫 번째 그룹은 미국의 심리학자 브랜트 로건이 개발한 ‘베이비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두 번째 그룹은 태교 음악을 실시한 그룹이었으며, 세 번째 그룹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대조군이었다. 태교의 내용은 임신 5-6개월부터 시작하여 매일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씩 태교를 실시

다. 따라서 임신 중 태교는 태아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충남대 의대 산부인과학



그림·문병성



보조지들의 ‘간화결의론’ ①

연재를 시작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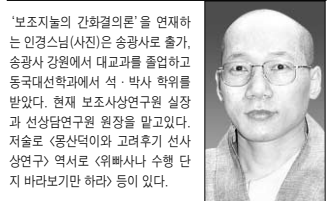
불교 수행론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가지는 삶의 의미나 고통을 불교 수행을 통해서 해결해보려는 시대적 반영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보니 수행론들 사이에 기본 개념에 대한 대립된 관점이 대두되면서, 서로를 비교하여 논의하는 기회가 많아졌다. 전통적인 간화선은 물론이고, 초기불교 수행론과 더불어 제삼 수행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수행에 관한 이런 논의는 종파적이고 세속화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불교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게 하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제목을 직역하면 ‘간화(禪話)와 ‘결의(決疑)에 관한 논의, 혹은 ‘간화에 의한 의식의 결단에 관한 논의’란 의미를 가진다. 간화는 말 그대로 대화를 자세하게 본다(看)로 화두 참구를 의미한다. 결의는 화두를 참구하는 구체적인 작업으로서 ‘의심을 결심하고 해결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간화가 간화선이 성립되는 선문답의 철학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결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함축한다.

간화에서 화(話)란 이야기를 의미한다.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야기의 존

적으로 찾아온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데 모든 선문답에는 그 자체적인 모순과 갈등, 혹은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상징과 긴장감이 가로 놓여 있다. 이것에 대한 의식이 바로 결의다. 의식은 선문답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독자수행자의 권한이고 몫이다. 어떤 선문답에서 어떻게 탐색해 의심하고 어떤 의미를 발견하느냐는 순전히 각자 자신의 삶의 무게, 그 자신의 실존적 결단이 걸린 사안이다. 결의(決疑)란 일었던 얼음이 풀리듯이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삶의 현실에 대한 얼음만큼이나 차가운 자신의 내적인 단호한 결심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간화결의란 선문답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내적 상징에 실제로 참여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경(禪상담연구원장)




‘보조지들의 간화결의론’을 연재하는 인경스님(사진은 송광사로 출가, 송광사 강원에서 태교를 졸업하고 동국대선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보조사상연구원 실장 겸 선상담연구원 원장을 맡고있다. 저술로 <공산사의외교로기 선사상연구> 원서로 <해바사나 수행 단지 바라보기만 하라> 등이 있다.

탐색, 의심, 의미발견은 자신의 몫

요한 관건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 설 때 ‘과거는 현재에서 반복된다’는 경구가 분명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만약 과거의 문헌적 연구에만 머물고,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서원이 결여된 게으름이 아닌가 생각된다.

재를 전제해야 된다. 이야기가 없다면 전하는 메시지도 없다. 또한 이점이 간화선이 바로 당 송대의 선문답에서 비롯되었다는 단초를 제시한다. 모든 선문답은 스승과 제자 혹은 도반들 사이에 활기찬 대론으로서 다음 아닌 진리를 향한 모험, 그 삶의 이야기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찾아 나선 선각자들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더불어서 발생한 고난과 좌절, 극

보조지들(權照知訥 1158-1210)의 저작으로 알려진 <간화결의론(談話決疑論)>은 한국 최초의 간화론에 관한 논서로서 중요



영험량
빅미승 예언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점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점신
- 20년전 낙태혼 점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점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원사 초하루, 18일 밤
031-336-3734 · 3735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권행”**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길위에 서있는 수행자물건을 위한 전용신발 - 권행만행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 렐드·반사이론) (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상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기능: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중핵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정맥·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성요소의 세포로 건너 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

1. 구두인족의 특수안장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비박인장이 발바닥 골극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디스크보존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1) 742-0296, 742-0297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관절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 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냉 습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간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신장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응(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